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등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88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0일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사법 쿠데타·정치 재판에 정의가 무너진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사건 속도전에 시민사회·법조계 등 강력 반발
광주비상행동·변호사회·천주교사제단 "주권자 선거권 박탈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이 34일 만에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연데 이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례적으로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광주·전남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사법 쿠데타를 통한 제2의 내란",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사법부를 직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이 후보와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대법의 파기환송 이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파기 환송심이 진행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후보 자택 주소지가 있는 인천지법과 민주당 중앙당사, 국회가 있는 서울남부지법의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통 소송 서류는 우편 전달을 먼저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해 송달한다.

대법관들이 상고심에서 이 후보 사건기록 6만 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기간에 결론을 냈다는 의문도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상고심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1·2심이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고, 문제가 되는 발언의 해석과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등 원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만 심리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사법부가 뚜렷한 명분 없이 재판을 서두르자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실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대법원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제2의 내란을 시도하고 있는 등 내란 세력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대법원이)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내란 세력의 회생을 위한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고, 국민이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더욱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의 절차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적 시도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서울고법이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 기일을 잡았다는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재판) 진행을 예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면서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선거권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명 넘게 참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후보와 '찰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영동군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단일화' 내홍…김문수, 선거일정 중단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2면〉

김 후보는 이날 당이 자신을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도부는 '당원과 국민 배신'을 거론하며 단일화에 나서라는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경주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에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내년 착공
전남도, 국토부 심의 통과…3685억 투입 왕곡면에 조성

전남도 역점 사업인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이후 7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를 할 방침이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다. 사업비 3685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2만㎡(36만평) 부지에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기업투자 수요 부족 등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철회된 바 있다. 2022년 전남도가 재의요청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4년 6월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한 지 10개월만인 지난 4월 30일 중앙심의를 통과했다. 국토부와 전남도는 올해 안으로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는 에너지밸리 조성, 신소재 및 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IT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지향적 산업 기반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빛가람혁신도시에 구축 중인 '에너지밸리'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4개 권역에 걸쳐 나주혁신산단,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광주 도첨국가산단, 나주 신도일반산단을 포괄하는 대형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전남도는 두 산업거점을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는 전남도와 관계기관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정의 달 5월, 가정이 더 두려운 사람들 ▶6면
KIA, 키움에 5-3 승리 '위닝 시리즈' ▶18면
조인호 키워드로 읽는 광주·전남 미술사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25일 저녁 8시30분 화려한 불꽃쇼 보러오세요!"
2025. 05. 23. |금| – 25. |일| 3일간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
[초대가수]

23일(금) 현진우

24일(토) 현숙

25일(일) 장민호
홍어 50%, 한우 30%
상설 할인판매장 운영

'600년 전통 숙성 홍어의 본고장 영산포'
| 주최 : 나주시 | 주관 : 영산포 홍어&한우 축제 추진위원회